

250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2018. 5. 14



서울시 비영리스타트업 실태와 청년일자리

박희석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는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 전반의 다양한 정책 이슈를 발굴하여 분석함으로써
서울시의 비전 설정과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작성된 정책보고서입니다.

발행인 : 서왕진

편집인 : 정희윤

발행처 : 서울연구원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

twitter.com/seoulinstitute

www.facebook.com/SeoulInstitute/

※ 이 정책리포트는 서울연구원의 연구보고서 「서울시 비영리스타트업 현황과 청년일자리」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이 정책리포트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250

2018. 5. 14

서울시 비영리스타트업 실태와 청년일자리

	요약	3
I.	청년실업과 비영리스타트업의 태동 배경	4
II.	서울의 비영리스타트업 특성과 주요사례	8
III.	비영리스타트업 청년 종사자 및 대표자 실태	14
IV.	정책제언	20

박희석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02-2149-1227
hspark@si.re.kr

서울의 청년실업률은 2017년 10.1%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저성장 기조가 초래한 고용시장의 구조조정과 경력직 채용 선호로 신규 일자리는 축소되고 있다. 그런데 사회적경제 영역이 다양화되고, 신기술을 이용한 여러 형태의 창업이 증가하는 흐름 속에서 최근 새로운 창업의 형태로 비영리스타트업이 부각되고 있다. 서울 비영리스타트업의 실태를 알아보고 청년실업 문제의 한 대안으로서 비영리스타트업을 제시하고자 한다.

비영리스타트업은 사회공헌도, 청년고용, 성장세가 높은 신생기업

현재 태동단계인 서울의 주요 비영리스타트업은 사회적인 공익을 추구하고 있으며, 기존과 차별화된 비영리 관련 사업아이템을 활용하고 있다. 창업 후 성장세가 크며, 영업은 비교적 안정적이다. 고용창출효과가 크고 5인 이내 소규모에서부터 10인 이상의 사업체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청년층의 고용이 많다는 점이 특징이다.

비영리스타트업 대표자들 “청년에 괜찮은 일자리…자생력 갖게 지원”

비영리스타트업 대표자들은 주로 사회공헌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여 창업하였고, 공공에서 받은 지원이 사업의 정착과정에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청년 직원들은 본인이 주도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자신의 가치와 연결된 일을 함으로써 직업만족도가 높았다. 이러한 점에 비춰 볼 때 비영리스타트업은 청년에게 괜찮은 일자리가 될 수 있다.

비영리분야 산업생태계가 조성돼야 비영리스타트업이 활성화 가능

비영리스타트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비영리분야의 생태계가 잘 조성되어야 하며, 생태계 조성 관련 제도의 개선과 공공의 체계적 지원이 요구된다. 세부적으로 비영리스타트업의 DB 구축, 유사단체와의 네트워크 확대, 중간지원조직 운영, 기부금 제도 개정과 공인된 회계기준 도입 등으로 투명하고 안정적인 사업환경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비영리스타트업의 청년 일자리 제공 기회를 확대하고 청년일자리 창출을 지속하기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 현재 시행 중인 뉴딜일자리, 단기 공공근로 사업을 비영리스타트업에도 확대 적용하고, 창업 초기 우수 사업체에 인건비 직접지원, 우수사업체 발굴, 취업박람회 개최, 인재풀과 취업 창구를 직접 연계하는 사업을 활용해 청년일자리 창출을 지속할 수 있는 사업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아울러 기존 비영리스타트업의 일자리도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정규직 전환 시 인센티브 제공, 직접지원사업 확대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I. 청년실업과 비영리스타트업의 태동 배경

청년실업률, 다양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아

서울의 청년실업률은 최근 3년간 10% 내외를 유지, 2017년 10.1%를 기록

-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률은 2012년 이후 증가 추세
- 통계청에서 발표한 서울의 청년실업률은 2017년 10.1%로 전국의 청년실업률 9.8%보다 0.3%p 높은 수준
- 서울의 청년실업률은 전국평균보다 소폭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현실에서 체감하는 청년실업률은 공식통계보다 더 높을 것으로 추정
- 2017년 서울의 전체 실업률(4.5%)에 견줘 청년실업률은 2배 이상 높아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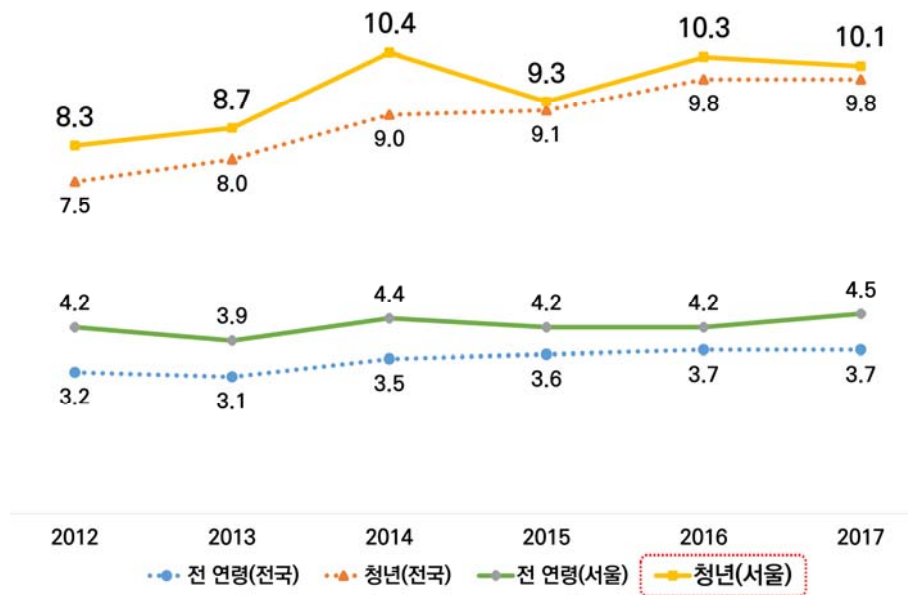


그림 1. 서울시 청년실업 추이

자료: 통계청

새로운 창업형태로 비영리스타트업이 주목

서울경제는 소득양극화, 저출산, 노령화 등 구조적 요인으로 저성장 기조를 지속

- 저성장 기조와 고용시장의 구조조정, 경력직 채용 선호 현상 등으로 신규 일자리가 줄어 청년실업은 전략적 대응이 시급
- 저성장 기조에도 불구하고 우버(Uber)나 에어비앤비(Airbnb)와 같이 신기술을 이용한 여러 형태의 창업이 증가 추세
- 신산업 영역은 클라우드 펀딩을 활용한 자금조달 경로의 다양화에 힘입어 점차 확대 추세
- 또한, 사회적경제의 인식 확대와 지자체의 지원센터 운영 등으로 사회적경제 영역이 다양화됨에 따라 새로운 창업형태로서 비영리스타트업이 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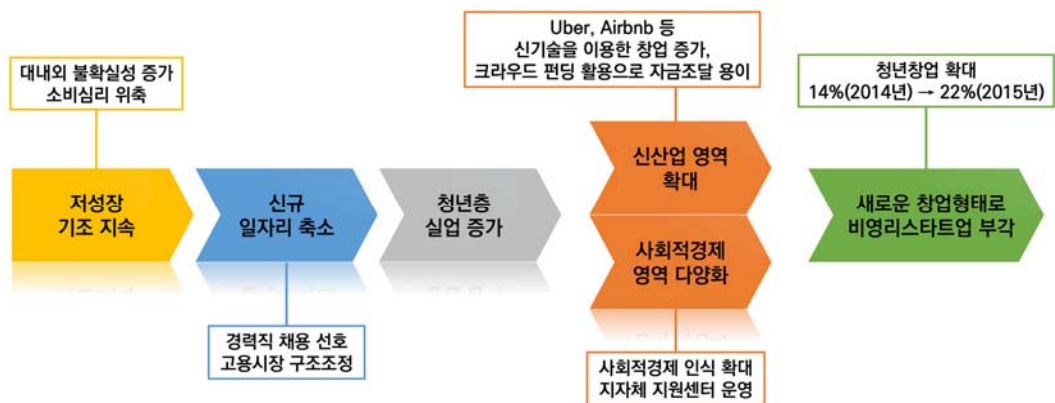


그림 2. 비영리스타트업의 태동 배경

비영리스타트업은 사회공헌도, 청년고용, 성장세가 높은 신생기업

비영리스타트업은 비영리(nonprofit)와 스타트업(startup)의 합성어로, 사회공헌을 목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사업방식을 채택

- 비영리스타트업의 주요특징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새로운 사업방식을 활용하며, 사회공헌도와 청년고용률과 성장세가 높고, 사회적경제의 틀에서 생겨나는 비영리 단체나 사업체
- 재원은 주로 기부금 또는 현금출자의 형태로 조달하여 운영하는 것이 특징
- 기술발전과 사회적 인식의 전환으로 최근 새로운 창업형태인 비영리스타트업이 부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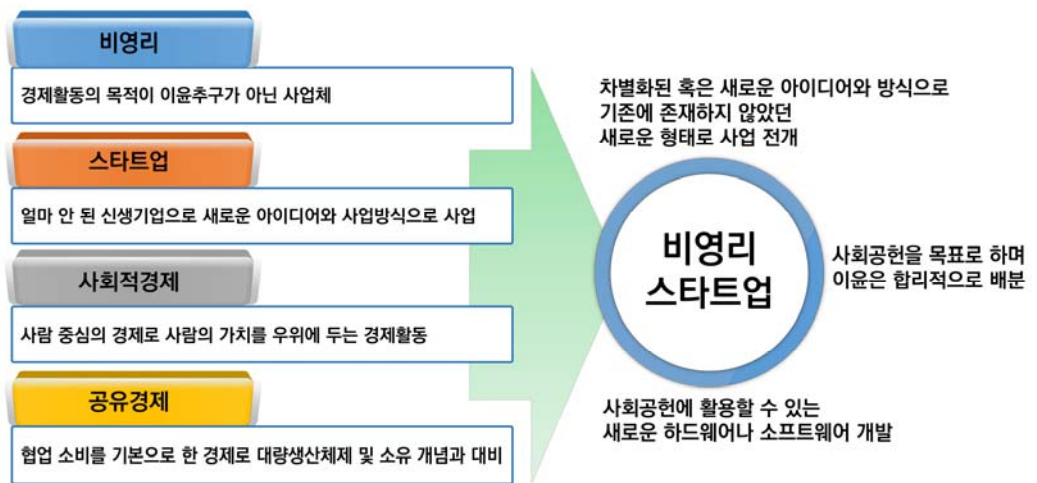


그림 3. 비영리스타트업 개념도

비영리스타트업의 설립은 사회적 문제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

비영리스타트업은 비영리단체나 사회적경제 분야와 마찬가지로 사회공헌이 목적

- 비영리스타트업은 전통적인 비영리분야인 종교, 돌봄, 자선 등의 분야뿐 아니라 출판, 컨설팅, 공유경제, 도시재생,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목적사업을 시행
- 전통적인 비영리분야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사업을 전개해나가기도 하지만,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여 사업을 시작하는 사례도 존재
- 비영리스타트업 조직은 비영리단체와 사회적경제(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의 복합적인 특성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
- 기금을 모금할 때 크라우드 펀딩과 같은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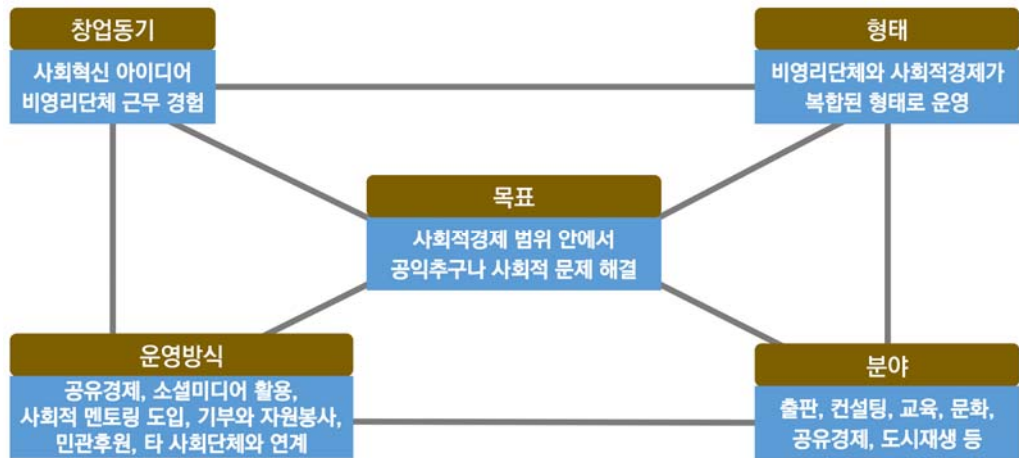


그림 4. 비영리스타트업의 운영 방식

II. 서울의 비영리스타트업 특성과 주요사례

비영리민간단체의 주된 사업분야는 복지와 인권

- 서울시 2,000여 개 비영리민간단체의 사업유형은 크게 10가지로 분류¹⁾
 - 10가지 사업유형은 ① 문화·예술, ② 교육·컨설팅, ③ 복지·인권, ④ 제조·생산·유통, ⑤ IT, ⑥ 건축·공간, ⑦ 네트워크·지원, ⑧ 환경·생태·에너지, ⑨ 미디어, ⑩ 기타 등
 - 사업목적과 내용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복지·인권이 646개(32.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그다음으로는 네트워크·지원이 432개(21.4%), 문화·예술은 424개(21.0%), 교육·컨설팅이 240개(11.9%), 환경·생태·에너지가 187개(9.3%) 순
 - 그 외 100개 이하의 단체로 건축·공간(31개, 1.5%), 미디어(27개, 1.3%), 제조·생산·유통(15개, 0.8%), IT(13개, 0.7%), 기타(2개, 0.1%)가 차지

키워드 분석 결과 가장 눈에 띄는 분야는 문화와 교육

- 빅데이터를 이용한 키워드 분석 결과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의 주된 사업분야는 문화와 교육으로 출현 빈도수가 500회 이상²⁾
 - 그 외에 청소년이 416회, 연구가 359회, 장애인이 347회, 활동은 336회 등의 순으로 많이 검색
 - 또한 사회(297회), 개발(251회), 지원(248회), 프로그램(232회), 지역(218회), 시민(205회) 등의 단어가 200회 이상 검색

1) 행정안전부, 비영리단체등록현황 2017년 2분기

2) 서울연구원, 2017, 『서울시 비영리스타트업 현황과 청년일자리』

- 버즈 분석 결과,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는 주로 교육·문화·사회 분야에서 장애인·청소년·시민·지역을 대상으로 연구·지원·개발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시행하거나 활동

그림 5. 비영리민간단체 목적과 활동내용의 버즈 분석 결과

비영리스타트업은 사회적 공익을 추구하며 청년고용에 긍정적

주요 우수사례는 규모에 비해 청년고용 비중이 높은 편

우수 비영리스타트업 사례는 대부분 10인 이하로 구성

- 일정 수준의 사업체 선정기준과 이에 부합하는 우수사례를 참고해 서울에서 현재 영업 중인 18개의 대표적 비영리스타트업을 선정
- 전반적으로 직원 수는 많지 않지만, 전체 직원 중 청년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
- 직원 전체가 청년층으로 이루어진 비영리스타트업은 18개 사업체 중 7개이며, 그 외 대표자를 제외한 전원이 청년층인 사례도 다수
-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10인 이상의 비영리스타트업뿐 아니라 5인 이내의 소규모 비영리스타트업도 대부분 직원이 청년층으로 구성

표 1. 비영리스타트업 우수 사례조사 대상 업체

단체명	구분	사업 내용	전체 직원(명)	청년 고용(명)
열린옷장	공유	기증과 공유를 통해 마련된 정장을 필요한 사람에게 대여	12	11
점프	교육	교육봉사, 인재양성, 연구 및 강연, 사회적경제 협력	13	11
멋쟁이 사자처럼	IT	학교 연계 교육 프로그램, 기관 AI 강의·경진대회, 도서관간 지역 초등학교 프로그래밍 교육	-	-
진저티프로젝트	지원	비영리단체 서포트 프로젝트, 비영리 연구·출판 프로젝트, 기업재단 사회공헌 프로젝트	7	6
바라봄 사진관	사진	영리기업의 행사촬영 수익이 비영리단체 행사 촬영으로 연결	3	1
(사)루트임팩트	인재양성	체인지메이커를 발굴, 육성하고 지원	19	19
타이드인스티튜트	기술	선도형·기술기반형 창업 문화 확산을 위해 창업관련 교육·대회·세미나·시제품 제작 지원	30	27
광진아이누리애	협동조합	육아교육사업, 수제 먹거리 판매, 홍보물 제작, 평생교육원 위탁·운영	7	2
FLRY	봉사	남겨지는 웨딩플라워를 소외계층에게 기부하여 기쁨과 위로를 전달	3	3
(사)마포 공동체라디오	방송	지역주민, 소외계층을 위한 방송을 제작하고 참여를 확대	6	5

단체명	구분	사업 내용	전체 직원(명)	청년 고용(명)
비영리IT 지원센터	IT	사회적경제조직에 필요한 ICT 자원을 연결하고 지원	10	5
로사이드	예술	사회적 소수자의 예술 활동을 지원	17	15
십시일밥	나눔	취약계층 대학생 무료식권 지원사업	6	6
희망유스나래	교육	청소년 인성함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활동	3	3
그린트리 예술창작센터	예술	지역주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지속적인 문화예술 창작 공연	8	5
미라클워커 엔터테인먼트	문화	공연 기회 프로모션	5	5
땡땡	인권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상담 및 개입	5	5
캠퍼스 에너지 세이버	에너지	대학교 건물의 경제적 가치 향상 및 유지비용 절감을 위한 지속가능한 관리환경 제공	23	23

국내 주요 비영리스타트업은 사업대상이 다양

비영리사업은 주로 사회적 소수자가 대상이지만, 비영리스타트업은 다양한 분야로 지원 대상을 확대

- 국내 비영리스타트업은 목적사업이 다양하고 사업아이템이 기준과 차별화
 - 예를 들어 정장을 기부받아서 필요한 사람에게 대여해주는 ‘열린옷장’과 결혼식 등에서 사용하고 남겨진 꽃을 소외계층에게 기부하여 기쁨과 위로를 전달하는 ‘FLRY’ 등
 - 취약계층 대학생 무료식권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십시일밥’과 대학교 건물의 경제적 가치 향상과 유지비용 절감을 위한 지속가능한 관리환경을 제공하는 ‘캠퍼스 에너지 세이버’ 등
- 문화예술과 교육 또한 비영리스타트업이 관심을 가지는 분야

- 예술과 관련된 비영리스타트업으로는 지역주민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문화예술 창작 공연을 하는 ‘그린트리예술창작센터’와 공연 기회를 프로모션하는 ‘미라클워커 엔터테인먼트’ 등
- 교육 분야에서는 청소년 인성함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희망유스나래’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학생과 학생을 매칭시켜주는 ‘점프’ 등
- 비영리분야를 지원하는 비영리스타트업도 존재
 - 사회적경제조직과 비영리분야에 ICT자원을 연결하고 지원하는 ‘비영리IT지원센터’와 세상을 바꿀 체인지메이커를 발굴하고 육성하며 지원하는 ‘루트임팩트’ 등
 - 비영리단체의 지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연구·출판을 하는 ‘진저티프로젝트’와 영리기업의 행사촬영 수익을 비영리단체 행사촬영으로 연결하는 ‘바라봄 사진관’ 등
- 신기술을 활용한 비영리스타트업의 사례도 발견
 - 대표적인 사례로는 코딩이라는 주제로 학교 연계교육 프로그램과 도서산간 지역 초등학교 프로그래밍 교육을 하는 ‘멋쟁이 사자처럼’ 등
 - 선도형·기술창업형 창업문화 확산을 위해 창업관련 교육·대회·세미나·시제품 제작을 지원하는 ‘타이드인스티튜트’ 등
- 지역에 근거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비영리스타트업
 - 지역주민과 소외계층을 위한 방송을 제작하고 이들의 참여 확대를 유도하는 ‘마포공동체라디오’ 등
 - 지역여성을 중심으로 육아교육사업, 수제 먹거리 판매, 홍보물 제작, 평생교육원을 위탁·운영하는 ‘광진아이누리에 사회적협동조합’ 등
- 기존 비영리영역에서 고려하지 못했던 대상까지 지원을 확대
 - 청소년 성소수자에게 위기상담과 개입으로 도움을 주는 ‘땡땡’과 사회적 소수자의 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로사이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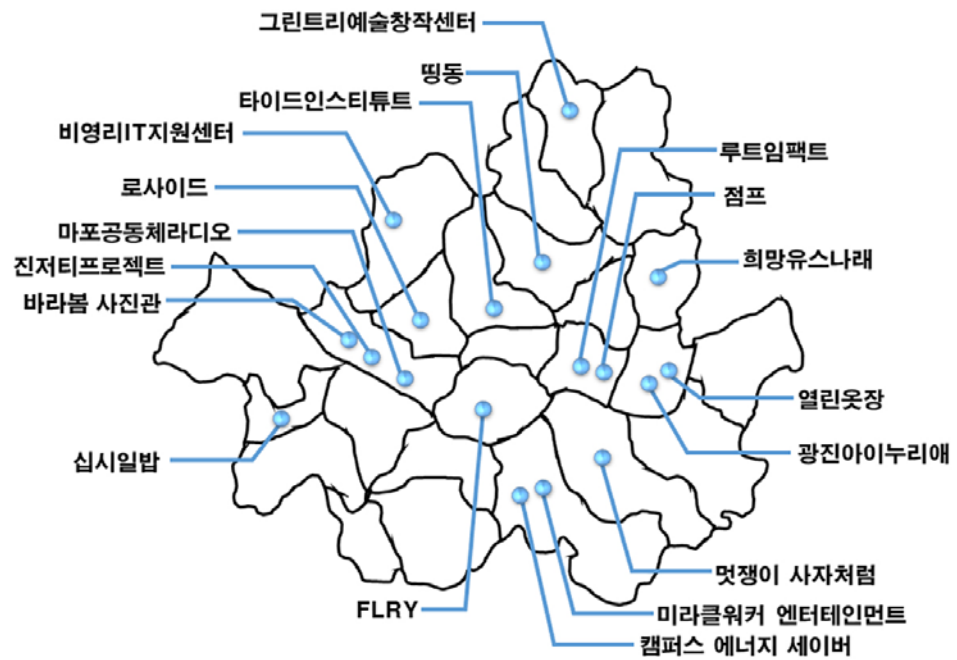


그림 6. 서울시 주요 비영리스타트업 분포

자료: 서울연구원, 2017, 『서울시 비영리스타트업 현황과 청년일자리』

Ⅲ. 비영리스타트업 청년 종사자 및 대표자 실태

청년근로자는 여성 비중이 높고 대부분 정규직 형태로 근무

청년취업자의 대부분은 정규직 형태로 근무

- 고용이 보장되는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이 각각 30명과 1명으로 조사, 청년취업자는 대부분 정규직 형태로 근무
- 그 외 고용기간이 정해져 있는 계약직과 인턴은 각각 8명과 3명, 기타 2명은 창업자, 전문위원으로 근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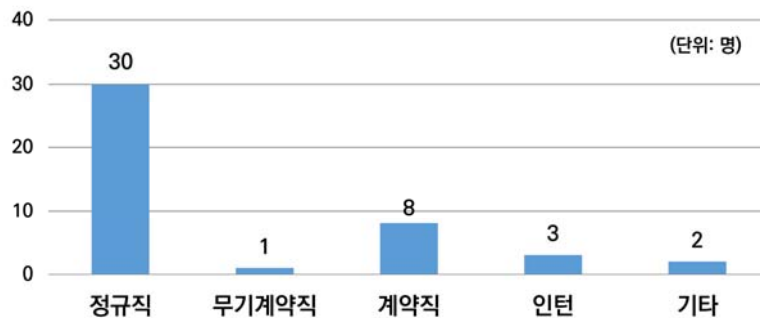


그림 7. 설문조사 주요결과: 계약형태

대부분 대졸 이상이고 다양한 직급에 종사하지만, 급여는 월평균 200만 원 수준

- 비영리스타트업의 청년취업자는 다양한 직급으로 종사
- 대표(4명)부터 팀장(7명), 대리(4명), 주임(2명), 사원(5명), 매니저(8명), 간사(3명) 등 다양한 직책으로 업무에 종사
- 그 외 기타(11명)로 직급이 없는 사례도 있었으며, 청년혁신활동가 등 일반적으로 잘 사용하지 않는 직급도 존재
- 주요업무는 일반사무, 기획, 회계, 연구지원 등의 행정업무와 의류대여, 저소득층 창업대출, 건축설계 및 인테리어, 비영리단체 활동가 개인역량 강화 지원 등 사업체 고유의 업무를 수행

- 학력은 대졸 이상으로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
 - 대부분 대학 재학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고, 대학 졸업이 35명으로 다수
 - 대학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응답자도 8명(18.2%)으로 학력수준은 높은 편
- 초과근무수당을 제외한 급여는 월 200만 원 이하가 대부분
 - 급여가 월 200만 원을 초과한다는 응답은 전체 44명 중에서 9명(20.5%)에 불과
 - 비영리스타트업에 종사하는 청년근로자 대부분이 200만 원 이하를 받고 있어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은 열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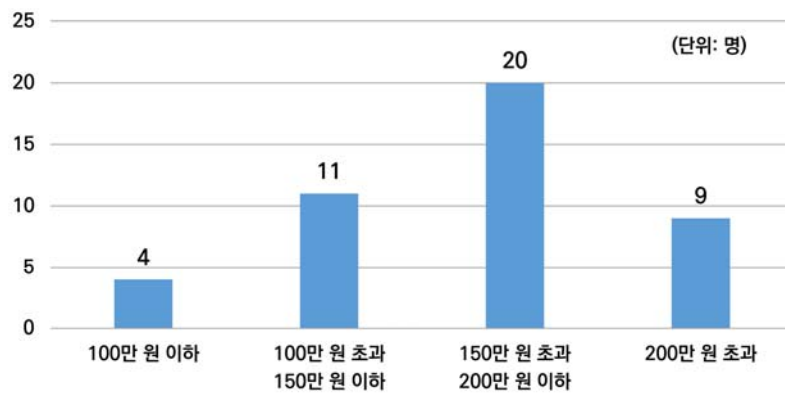


그림 8. 설문조사 주요결과: 월 급여(초과수당 제외)

표 2. 설문조사 개요

조사대상	사회적경제를 포함하여 비영리스타트업에 근무하는 청년 44명(만 20~39세)
조사방법	정형화된 설문지를 통한 온라인조사와 직접 방문조사 병행
조사 기간과 지역	2017년 5~6월, 서울 소재 사업체
조사내용	일반 현황, 일자리 현황, 일자리 만족도, 장래 비전 및 바라는 점

비영리스타트업 재직 청년은 사회공헌 등 내적 동기로 현 직장 선택

비영리스타트업을 선택한 요인은 내적 동기가 가장 큰 영향

- 현재의 직업을 선택한 동기로는 ‘자아실현을 위해서’가 19명(43.2%), ‘사회공헌을 위한 사명감’이 13명(29.5%)으로, 내적 동기가 전체 응답자의 72.7%를 차지
- 그 외에도 ‘업무가 재미있을 것 같아서’에 6명(13.6%)이 응답
- ‘다른 대안을 찾지 못해서’ 현재의 직업을 선택했다는 응답은 2명(4.5%), 기타 응답으로는 ‘삶의 사명’, ‘관심분야’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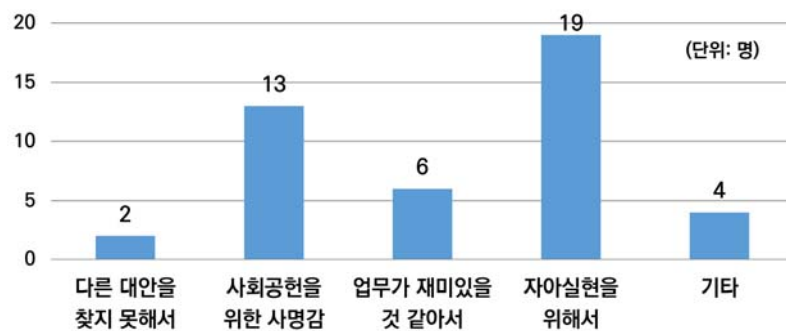


그림 9. 설문조사 주요결과: 직업 선택 동기

비영리스타트업의 청년근로자는 주관적이고 내적인 부분에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

-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이유는 내적 동기와 연관
- 현재 일자리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을 선택해달라는 질문에 ‘자신의 적성과 흥미’ 21명, ‘개인발전 가능성’ 18명,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12명, ‘직무수행의 자율성’ 11명 순으로 응답
-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고 직무수행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스타트업의 장점에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

- 또한, 구성원 간의 관계를 대변해주는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도 대체로 만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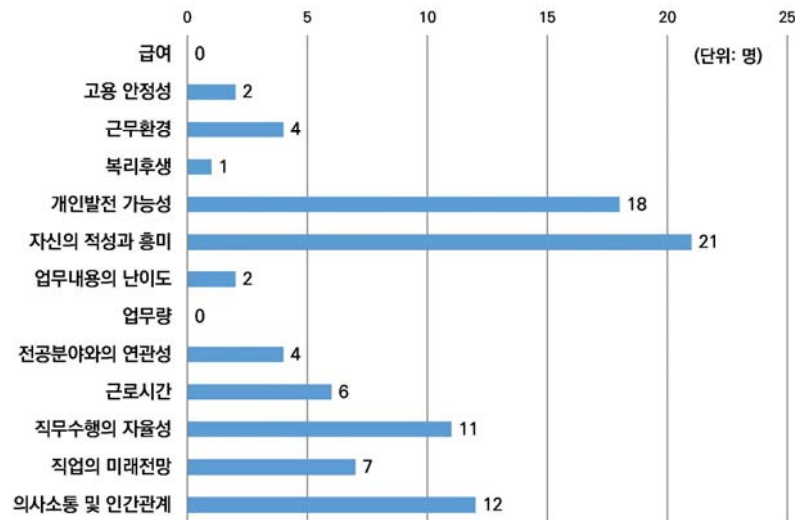


그림 10. 설문조사 주요결과: 현재 일자리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 2가지 선택

설문조사 결과, 비영리스타트업 분야는 괜찮은 청년일 자리를 창출할 가능성 존재

- 비영리스타트업의 발전을 위해서 자생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안전망을 마련할 필요
 - 비영리스타트업의 재직 청년은 현재의 직장에 취업하기 전에 일 자리를 가지고 있었으며, 정규직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이 대부분
 - 응답자들은 비영리스타트업이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일 자리이고, 직무수행의 자율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
- 미래의 사업전망도 희망적으로 보고 있으며, 사회적 평판도 점점 나아질 것으로 기대
 - 동종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일하고 싶다는 의견이 많아, 비영리스타트업은 청년들에게 괜찮은 일 자리가 될 가능성이 존재
 - 다만 청년일 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비영리사업 분야가 더욱 발전해야 하고, 더 많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

일자리 선택은 자발적이었으며, 이전 직장 경험이 있는 직원도 다수

- 비영리분야의 일자리를 선택한 동기는 '자아실현을 위해서', '사회공헌을 위한 사명감'이 높은 응답
- 입사경로는 채용시험 합격 등 공채와 회사의 특별채용·해당 직장 근무자 추천의 비중이 비슷
- 취업 전 사회적경제 관련 프로그램 또는 교육의 경험이 없는 직원이 다수
- 이전 직장 경험이 있는 직원이 다수였으며, 그 중 65% 정도는 정규직 근로자

급여와 고용 안정성에 대한 부분은 불만족

- 자신의 적성·흥미, 개인발전 가능성, 업무의 난이도, 직무수행의 자율성 등은 높은 만족도
- 급여와 고용안정성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
- 기타 의견에서도 급여에 대한 부분, 처우에 관한 문제, 고용안정성 등에 대한 의견을 제기

미래에 대한 전망은 밝은 편이나, 현재의 지원과 청년일자리에 대해서는 보통 정도로 생각

- 사업전망은 희망적이고, 추후 업계의 사회적 평판은 좋아질 것으로 예상
- 향후 계획은 비영리분야에서 계속 근무(계속 근무, 동종 분야로 이직 등)의 비중이 높은 편
- 현재 서울시의 비영리 및 사회적경제 분야의 지원은 약간 긍정적 또는 보통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
- 비영리분야 일자리의 청년취업에 대해서는 보통

그림 11. 설문조사 주요결과 종합

공공지원은 비영리스타트업의 창업 초기와 활성화에 도움

창업 당시 공간 확보, 생계문제,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 표준화되지 않은 제도, 조언받을 곳의 부재 등으로 어려움 경험

- 서울의 비영리스타트업 창업경험이 있는 대표자 중심으로 심층인터뷰
 - 창업 시에 받은 지원은 주로 응모 사업,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공간 지원, 개인투자 등
 - 어려운 상황에서 공공지원은 사업의 정착과정에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
 - 기존 비영리단체의 운영방식과 제도적 문제점 등이 비영리스타트업 경영의 부담으로 작용
- 일부 애로사항은 있지만, 비영리스타트업은 괜찮은 청년일자리 기회를 제공
 - 비영리스타트업의 경영 가치는 사회공헌으로서 청년 직원들은 본인이 주도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존재

- 재직 청년은 자신의 가치와 부합된 일을 함으로써 직업만족도가 높고, 비영리스타트업의 사업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좋은 인재가 배출될 기회도 확대
- 그러나 풍부하지 않은 인재풀, 불합리한 관행, 봉사활동이라는 사회적 인식, 낮은 임금수준, 생소한 분야 등의 문제는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적

창업 당시 일부 어려움이 있었지만, 공공의 지원은 어느 정도 도움

- 어려웠던 점: 공간 확보, 생계 문제,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 표준화되지 않은 제도, 조연 받을 곳의 부재 등
- 받은 지원: 응모 사업,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공간 지원, 개인투자 등

청년에게 괜찮은 일자리가 될 수 있으나 고용 문제에는 애로사항과 한계가 존재

- 긍정적 부분: 내재된 가치, 높은 만족도, 사업을 통한 고용 창출 가능성, 주도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감, 자신의 가치와 연결된 일을 함으로써 느끼는 만족감, 사회적 사명감 달성
- 애로사항과 한계: 적은 인재 풀, 낮은 임금수준, 사회적 인식(비영리=봉사=저임금), 관행에 적응하기 힘든 현실, 작은 조직으로서 청년들에게 줄 수 있는 성장 경험에 한계, 생소한 분야

비영리조직의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

- 비영리스타트업이 살아남아서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 비영리조직 간의 협업 환경 조성
- 비영리조직의 현황과 문제들을 진단하는 기초적인 연구 사업
- 단기적인 성과 지향적 지원보다는 비영리스타트업의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는 장기적인 지원으로 패러다임 전환

서울시가 지니고 있는 역량을 발휘하여 청년고용 문제를 해결

- 공공입찰 시 영리기업과 차별화할 수 있는 기준 마련
- 역량강화와 측면 지원도 중요하지만 직접 지원의 비중을 너무 낮추면 안 됨
- 서울시가 지니고 있는 장점을 활용하여 다른 지역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정책 개발에 대한 고민 필요

그림 12. 인터뷰 주요결과 종합

비영리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비영리조직의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 요청

- 비영리스타트업의 자생력 기반을 지원하고, 협업 환경의 조성이 중요
- 비영리스타트업의 현황과 문제를 진단하는 기초적인 연구와 성과지향적 단기 지원 보다는 장기적인 지원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
- 서울시의 장점은 청년 인재가 많다는 것이며, 이러한 역량을 활용하면 비영리스타트업이 청년고용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언급
- 공공입찰 시 영리기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경쟁을 하게 되면 비영리분야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받는 불이익을 감수하게 되므로, 제도적 개선이 필요
- 역량강화와 측면 지원도 중요하지만, 직접지원의 비중도 너무 낮추면 안 된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

IV. 정책제언

비영리스타트업은 생태계 조성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중점 지원

체계적인 지원, 제도 개선, 안정적 사업환경 구축으로 비영리스타트업의 생태계 조성

- 비영리스타트업 DB 구축, 유사단체 네트워크 확대, 중간지원조직 양성
- 기부금 제도 개정과 공인된 회계기준 도입으로 투명한 경영환경 구축
- 안정적인 사업환경 조성을 위해 창업 및 운영 지원

비영리스타트업의 일자리 영역 확대로 청년일자리 제공 기회 확대

- 비영리스타트업의 사업환경을 개선하고 창·취업을 지원해 청년일 자리를 창출하고 지속
- 비영리스타트업의 기존 일자리 유지 지원도 필요

주요 추진전략

주요 과제	추진전략
체계적인 지원으로 비영리스타트업의 생태계 조성	- 비영리스타트업의 DB 구축 - 유사단체와의 네트워크 확대 - 중간지원조직 양성
제도 개선으로 투명한 경영환경 구축	- '규제'에서 '허용'으로 기부금 제도 개정 - 공인회계기준 도입으로 투명한 기부금 모금 및 운영 - 행사진행 시 소요되는 부대비용 기준 현실화
안정적인 사업환경 조성을 통한 창업 및 운영 지원	- 사무실, 작업공간 등 전용공간 지원 - 다양한 형태의 공모사업 채널 확대
비영리스타트업의 사업환경 개선으로 청년일자리 확대	- 뉴딜일자리 등 공공영역에도 청년일자리 확대 - 창업 초기 우수업체에 한시적으로 인건비 직접지원
창업과 취업 지원으로 청년일자리 창출	- 우수업체(단체) 발굴, 취업박람회 개최 등의 지원 지속 - '청년허브', '서울잡스'를 활용하여 인재풀과 취업 창구를 직접 연계
비영리스타트업의 기존 일자리 유지 지원	- 정규직 채용 시 인센티브 제공 - 일자리 유지와 수익성 확보를 위해 직접사업 확대

생태계 조성과 청년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지원

체계적인 지원으로 비영리스타트업의 생태계 조성

- 비영리부문의 생태계 조성이 비영리스타트업 활성화의 선결 조건
- 비영리스타트업의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관련 사업체의 DB 구축, 유사단체와의 네트워크, 중간지원조직 양성 등이 필요
-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는 비영리스타트업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된 제도 개선과 행정적 지원이 필요

제도 개선으로 투명한 경영환경 구축

- 기부금 제도의 기본방향을 현행 '규제'에서 '허용'으로 개정하여 안정적인 사업환경 조성
- 공인된 회계기준을 도입해 투명한 기부금 모금과 운영 등으로 안정적인 사업 기반 확보
- 공공입찰에 참여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입찰기준을 정비하여 공정한 입찰기회를 제공하고, 사업 및 행사 진행 시 소요되는 경비 등 부대비용 지출을 현실화

안정적인 사업환경 조성을 통한 창업 및 운영 지원

- 비영리스타트업의 창업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안정적인 사업환경 조성
- 전용공간을 지원하고 공모사업의 채널을 확대하는 등 창업과 운영에 관련된 행정적 지원제도를 개선
- 공공지원, 사회적경제 육성사업, 대기업의 사회공헌 사업에 비영리스타트업을 포함하여 지원 채널을 확대

비영리스타트업의 청년일자리 창출로 청년실업 해결에 도움

비영리스타트업의 사업환경 개선으로 청년일자리 확대

- 청년일자리 확대를 위해 뉴딜일자리, 단기 공공근로 사업 등을 비영리스타트업에도 적용
- 창업 초기 비영리스타트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우수업체에 한시적으로 인건비 직접지원
- 서울시NPO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비영리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청년일자리 기회 제공

창업과 취업 지원으로 청년일자리 창출

- 비영리스타트업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안정적인 사업환경 조성
- 우수업체(단체) 발굴, 취업박람회 개최, 인재풀 확보 및 취업 창구 연계를 통해 비영리스타트업의 창업과 취업을 지원
- 위키서울과 같은 아이디어 대회를 활용해 우수사업체를 지속 발굴
- ‘청년허브’, ‘서울잡스’ 등 기존의 서울시 청년조직을 활용하여 우수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인재풀과 취업 창구를 직접 연계

비영리스타트업의 기존 일자리 유지 지원도 필요

- 청년들의 지속적인 근무환경 조성도 일자리창출 못지않게 중요
- 정규직 채용 시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직접지원사업의 확대 등을 통해 비영리스타트업의 괜찮은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
- 일자리 유지와 안정적인 수익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직접사업 확대 필요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는
서울연구원 홈페이지
www.si.re.kr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
twitter.com/seoulinstitute
www.facebook.com/SeoulInstitute